

초등학교까지 침투한 왜곡된 역사관...전수조사 서두르길

시·도교육청, 각 학교 긴급점검 리박스쿨 연계 교육 정황 없어 강사·프로그램 선정 허술 우려도 “늘봄강사 교육기관 시스템 점검”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에 파견한 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늘봄강사 양성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 댓글 조작 참여자들이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강사 채용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154개 초등학교에 채용된 늘봄강사는 2,172명으로 총 7,3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올해는 기존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초등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을 '늘봄학교'로 통합해 운영하며, 지난해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초 1~2학년으로 확대됐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규모로 늘봄학교가 운영 중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긴급 점검에 나섰다.

각 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연구사를 통해 리박스쿨-초등학교 계약 여부 등을 파악했으며, 점검 결과 현재까지 리박스쿨과 연관이 있는 늘봄강사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또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단체에서 자격을 얻은 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채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조작 참여자들에게 이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강사의 경우 각 학교에서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쳐 채용하도록 돼 있다”며 “리박스쿨이 발급해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학교에 제출한 강사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이날 리박스쿨과 관련해 각 시도 초등학교의 위탁교육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남지역 424개 초등학교에 채용된 늘봄강사는 5,395명으로 총 8,79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늘봄강사 채용은 각 학교와 교원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적 기업 등 민간기관에 위탁해 늘봄강사를 채용 중이며, 지역 대학과 연계해 개발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한 지역은 고흥, 보성, 영암, 완도, 신안, 장흥, 해남, 진도 등 8개 군으로 130개교에서 97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점검 결과, 전남지역의 위탁교육에는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탁업체와 리박스쿨 간의 직접적 연계는 물론 간접적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역 교육단체에는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늘봄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극우단체가 늘봄학교 강사 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 교육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교육당국은 지역 모든 '늘봄학교' 강사 양성기관과 강사 배치 현황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늘봄강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지침이 나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합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광주시청에서 5·18민주광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박병규 청장 “더블스타, 금타 광주공장 입장 밝혀야”

광산구 화재 대응 대책회의 피해주민 신속 보상 등 논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2일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는 광주공장 화재 피해 대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김명수 광산구의회의장, 성용태 금호타이어(주) 노사협력사무, 황경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0명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마련했다.

이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 신속 보상 △고용위기지역 정부 지정을 위한 연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대책 △생산·소비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보호 등을 논의했다.

박병규 청장은 “이번 화재로 인한 해결책은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와 노동자의 고용보장, 주민들의 생활안정 보장 등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더욱 확산하기 전에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직접 나서서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확하게 가지길 바란다”며 “이번 회의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과 관련해 노동자와 주민들의 의견도 이어졌

다. 황경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이전·폐쇄·재건 등 3가지 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빠르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철 광산구 어룡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마무리할 건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이 불투명하다보니 고용 안정성과 피해보상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더블스타의 입장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주민 피해 건수는 1만 9,1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적 피해는 1만 1,658건, 물적 피해 5,677건, 기타 1,848건으로 나타났다. 윤영봉 기자

오늘 오전까지 ‘비’...광주·전남 최대 20mm 예보

3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져 오전까지 최대 20mm가 내리겠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3일 광주·전남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3일 비가 그친 이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4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보이며 낮 최고기온이 소폭 상승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

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가 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딤페이크 음란물 제작 고교생 벌금형 선고

동급생 얼굴 사진 제작·유포 혐의

딤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딤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했다. 해당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h3>쌍촌동 (4층건물) 매매</h3> <h2>상가 주택</h2> <p>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p> <p>▶ 원가 급매</p> <p>13억 9억8천만</p>	<h3>장성토지 (담양)</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h3>상가 매매 (상무지구)</h3>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가능 (룸, 노래홀, 홀덱바) 6층 (전용 60평) <p>(보2천, 월수익 250만)</p> <p>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p>	<h2>법원 경매</h2> <p>★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p> <p>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p>
010-6670-9800		062-382-5500	